

#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접근

배현철

## 1. 서론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써 마감되고 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행28:23),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행28:30-31). 이 말씀들은 바울의 복음증거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여야 할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들이 우리의 목회적 사명위에 부여되어 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살피는 가운데 기존연구가 어떤 접근방법에 의해 전개되었나를 살피고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접근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언약적 접근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의 동향

하나님 나라에 관한 논의는 교회사의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리츨(Albert Ritschl, 1822-1889) 이후로 현대까지의 기간에 가장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근대적인 논의를 일별해 보기 이전에 리츨 이전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대교회의 경우, 처음 2세기 동안의 교부들의 ‘하나님 나라’ 논의는 전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이었다.<sup>1)</sup> 또 몇몇 초대교부(Barnabas, Papias, Irenaeus, Justin Martyr, Tertullian)에게 있어서는 좀 더 특수하게 지상 천년기 왕국론으로 전개된다.

2) 그러나 오리겐과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종말론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오리겐은 3중적(육체적·문자적·심적·도덕적·영적·정신적) 해석으로 유명한데, 그는 영적 해석법의 적용에 있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의 문자적 의미를 거부하였다. 그는 이 해석법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을 제거하였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 하여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아무런 미래적 성취도 있을 수 없다고 감히 가르친 최초의 인물이었다.<sup>2)</sup>

3) 중세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의 견해가 무분별하게 원용되었다.<sup>3)</sup>

4)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 루터는 어느 정도 어거스틴의 하나님 나라 개념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자신의 실제적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바르게 규정하였다.<sup>4)</sup>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혁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거스틴의 개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형적(invisible) 교회, 택자의(혹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와 동일시하였다.<sup>5)</sup>

이제 리츨 이후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논의를 방법론의 차원에서 그 대표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George Eldon Ladd, Crucial Questions about the Kingdom of God, 신성종 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서울: 성광문화사, 1989), p.20.

2) Ladd, CQKG, pp.22-23.

3) Peter Kuzmic,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명종남譯,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서울: 새순출판사, 1990), pp.25-26.

4) Kuzmic, CKG, pp.27-33.

5) Ladd, CQKG, p.23.

## 1. 자유주의적 접근

리츨(Albert Ritschl, 1822-1889)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고무된 행동을 통한 인류의 조직체”,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우주적 사랑에 의해 촉진된 행동을 통한 인류의 도덕적 통일체”,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은 호혜적(互惠的), 공동적 행동을 위한 인류의 협동체”로 보았다.<sup>6)</sup>

헤르만(Wilhelm Herrmann)과 하르낙(Adolf von Harnack)은 예수께서 사회적이면서 발전적인 진보를 시작하셨다고 보고 하나님 나라를 현존하는 내적-영적 실재로 이해하였다.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종교적 경험으로 파악하였다.<sup>7)</sup>

카프탄(Julius Kaftan)과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h)는 하나님 나라를 좀더 사회 도덕적인 개혁의 차원에서 이해하였다.<sup>8)</sup>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윤리를 주장한 교사이, 도덕가로 묘사한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심성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들은 예수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르고 계신다고 말하며,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sup>9)</sup>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로는 그 외에도 슈바이처의 스승인 홀츠만(H. J. Holtzmann)<sup>10)</sup> 등이 있다.

## 2. 역사비평적 접근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비평적 접근을 처음 시도한 사람은 바이스(Johannes Weiss)이다. 그의 해석은 하나님 나라를 윤리적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파악하려고 했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서 생긴 것이다. 바이스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 세계 역사의 일부로 자라나는 것도 아

6) Ladd, CQKG, p.24, Albert Ritschl,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and Reconciliation* (New York: Scribner's, 1900), p.12, 280, 290.

7) 김연태, “성경해석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해(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p.21.

8) 김연태, p.21.

9) 김연태, p.21.

10) Herman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오광민譯, 하나님 나라(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p.16.

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 질서를 초월한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미래적이다. 아울러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이다.<sup>11)</sup>

2)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바이스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 유대 묵시문학에서 근원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실재가 아니라 묵시적으로 오는 세대이다.<sup>12)</sup> 슈바이처는 예수의 메시지가 철저히 종말론적이며(cosistent eschatology),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생애에 곧 오리라 생각했지만, 슈바이처의 견해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었던 미친 묵시적 몽상(dream)에 맹신적으로 자기 삶을 헛되이 던져 버린 미혹된 광신자였다.<sup>13)</sup>

3) 다드(C. H. Dodd)는 복음서에 나오는 미래적인 요소가 후대 기독교 공동체나 복음서 기자의 첨가라고 보았다. 다드의 견해로는 묵시적인 용어는 하나의 표현 도구에 불과하였다. 예수께서는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realized eschatology), 하나님 나라 인자-심판-궁극적 축복이 이미 그 시대에 현존하였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현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마12:28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았다.<sup>14)</sup> 그러나 리덜보스가 볼 때 다드의 해석은 그 근거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 자유주의적인 개념을 현대 학문적인 의미로 전향시킨 것에 불과하였다.<sup>15)</sup>

4) 킴멜(W. G. Kümmel)은 그의 저서 *Promise and Fulfilment*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가까운 미래에 나타나라고 기대했던 선지적 종말이며 약속이지 묵시적 가르침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예수 자신만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11) 김연태, pp.20-23. George Eldon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이태훈譯, 예수와 하나님 나라(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3), pp. 16-17., Ridderbos, CK, pp. 12-15.

12) 김연태, p.23.

13) Ladd, PF, pp.16-17. A. Schweitzer의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1911)에 나타난 결론이다.

14) 김연태, pp.24-25.

15) Ridderbos, CK, p.37.

표징이다.<sup>16)</sup> 퓌멜은 이러한 주장의 과정에서 “예수가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였다.<sup>17)</sup>

5) 예레미야스(Jeremias)의 *Jesus als Weltvollender* (Jesus the consummation of the world, 1930)와 *The Parables of Jesus*<sup>18)</sup> 역시 현대적 의미에서의 역사비평적 접근법의 산물들이다.<sup>19)</sup> 그외에도 A. M. Hunter<sup>20)</sup> 등의 작품이 있다.

### 3. 실존주의적 접근

1) 볼트만(Rudolf Bultmann)은 철저종말론을 수용하되 실존주의 철학으로써 해석학적 변형을 가한다. 그는 스승 바이스의 견해대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유대 목시적 개념이라고 보지만, 목시적 표상을 ‘삶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뜻(세상적인 자기 욕망) 가운데서 결단을 해야하는 존재이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인 결단의 순환속에 현존한다. 그런데, 볼트만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실수했다는 역사비평적 결론 위에서 위와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sup>21)</sup>

2) 디벨리우스(M. Dibelius)의 *Evangelium und Welt*라는 작품 역시 실존적 종말론의 해석을 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수직적인 나라이다.<sup>22)</sup>

3) 그외에 Hans Conzelmann의 종말론,<sup>23)</sup> 슈미트(K. L. Schmidt)의 신종말론<sup>24)</sup>

16) Ladd, PF, pp.45-47. Hasel, NTT, p.71.

17) Ladd, PF, pp.42-43.

18) Ridderbos, CK, pp. 35-36.

19) Hasel, NTT, p. 71.

20) Ladd, PF, p.50. Hasel, NTT, p.71.

21) 김연태, pp.26-27. R. Bultmann, *Primitive Christianity in Its Contemporary Setting*, New York: Meridian, 1956.

22) 신성중,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그 변천과정”, 하나님 나라의 이해(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pp.12-13. Ridderbos, CK, pp.22-23.

23) Ladd, PF, p.21. *The Theology of Saint Luke*(1960). Hasel, NTT, pp.103-108.

24) Ridderbos, CK, pp.24-25.

등도 여기에 속한다.

### 4. 문학비평적 접근

1) 윌더(Wilder)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가장 새로운 장르에 담겨 있음을 주목하면서 언어 자체에서, 특히 상징과 은유로써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려고 하였다.<sup>25)</sup>

2) 페린(Normann Perrin)은 급진적 양식 비평법으로써 윌더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 개념이 아닌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성을 초월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여러 의미를 일으키는 상징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개념(a concept)이 아닌 상징(a symbol)으로 보고 있다.<sup>26)</sup>

3) 맨슨(T. W. Manson)의 *Jesus the-Messiah*(1946) 역시 양식비평법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종말론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sup>27)</sup>

### 5. 구원사적 접근

1) 쿨만(O. Cullmann)은 그의 책 *Christus und die Zeit*(1946)에서 복음서에 선포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는 시간의 진보과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속사에서의 위대한 극치의 순간으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 도래의 정수이다. 예수의 초림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은 결정적인 전투(D-day)와 승리의 날(Victory Day) 사이의 기간이다.<sup>28)</sup> 그는 “이미”(already)와 “아직 아니”(not yet)의 긴장 안에서 기독교적 시간에 대한 해석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시간은 정확한 직선이 아니라 넓은 다양성을 보이는 ‘유동적

25) 김연태, pp.28-29. Amos Wilder, *Early Christian Rhetoric: The Language of the Gosp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71.

26) 김연태, pp.29-30. Ladd, PF, pp.54-57. 페린의 상징이해는 Paul Ricoeur, *The Symbolism of Evil*(1969)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7) Ladd, PF, p.38.

28) Ridderbos, CK, p. 27, 35.

직선'이다. 콜만은 구원사적 접근방법으로써 볼트만 등의 실존주의적 방법에 도전하였던 것이다.<sup>29)</sup>

2) 리덜보스(H. Ridderbos)의 De Komst van het Koninkrijk(1950)가 H. de Jongste에 의해 The Coming of the Kingdom으로 영역되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역사적 사명 속에서 구약성경의 소망이 성취된, 즉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성취는 예수의 재림 때에 그 종말론적 완성에 이른다.<sup>30)</sup>

3) 래드(George E. Ladd)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활동으로 정의한다.<sup>31)</sup> 래드의 구원사관은 콜만의 구원사관과 차이가 있다. 그는 그것을 전승사와 연결시키지 않았다. 래드는 구원사를 "계시사의 흐름"으로 묘사하였다. 래드에게 있어서 신약신학은 주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안에서 행하신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된다.<sup>32)</sup>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대적 논의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하나님 나라에 관한 논의의 진행과정

연대	학자	결론
1892	Johannes Weiss	철저종말론
1904	Lewis Muirhead	비종말론
1908	Ernest von Dobschütz	비종말론
1909	H. B. Shaman	비종말론
1911	Earnest F. Scott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한) 철저종말론
	Albert Schweitzer	철저종말론

29) Hasel, NTT, pp.118-121.

30) Ladd, PF, pp.53-54.

31) Ladd, PF, pp.387-390.

32) Hasel, NTT, pp.127-129.

연대	학자	결론
1926	K. Barth	실존적 종말론
	J. Warschauer	철저종말론
1929	G. Gloege	현재적-미래적 종말론 ① 하나님나라 = 하나님의 종말론적-구속적 심판 행위(activity) ② 그리스도 = 하나님 나라의 bearer
	F. Burkitt	철저종말론
	M. Dibelius	실존적 종말론
1930	J. Jeremias	실현과정에 있는 종말론(예수자신 =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B. S. Easton	미래적 종말론(진행중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1932	Charles Guinebert(佛)	철저종말론
1933	Maurice Goguel	철저한(미래적) 종말론
1935	T. W. Manson	비종말론
1936	C. H. Dodd	실현된 종말론 (ἤγγικεν = ἐφθασεν = has come)
1937	B. T. D. Smith	철저종말론
1938	H. D. Wendland	현재적-미래적 종말론
1940	C. J. Cadoux	비종말론
	F. C. Grant	비종말론
1942	A. T. Olmstead	비종말론
	Matter	하나님 나라 = 비시간적 개념, 공간적개념(수직적 하나님나라)
1943	R. Otto	현재적-미래적 종말론
1945	Kümmel	현재적-미래적 종말론
1946	O. Cullmann	현재적-미래적 (already-not yet의 긴장)

연대	학자	결론
1949	T. W. Manson	현재적-미래적 하나님 나라
1950	H. Ridderbos	현재적-미래적 하나님 나라
	A. N. Wilder	현재적-미래적 하나님 나라
1952	Leroy Waterman	비종말론
1953	Ernest Percy	현재적-미래적 하나님 나라
1954	John Wick Bowman	비종말론(prophetic realism)
	R. H. Fuller	미래주의적 종말론 (inaugurated eschatology)
1956	R. Bultmann	실존적 종말론(종말의 압박성)
1957	Martin Werner	철저종말론
	Erich Grässer	실존적 종말론 (종말의 압박성 강조)
	A. M. Hunter	현재적-미래적 하나님 나라
1960	Hans Conzelmann	실존적 종말론(종말의 압박성)
	Günter Bornkamm	현재적-미래적 하나님 나라
1963	Rudolf Schnackenburg	현재적-미래적 하나님 나라
1974	George Eldon Ladd	현재적-미래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 인간의 마음, 예 수라는 인물, 인간 역사속에서 역 동하는 하나님의 통치)

자료원: Ridderbos, CK, pp.11-37. Ladd, PF, pp.15-60. 및 이 논문의 제1장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 제2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접근

### I.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접근의 정당성

우리는 제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하였다. 이제 그 연구 과정을 평가해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연구의 당위성을 논증하기로 한다.

#### 1. 기존연구에 대한 평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논의가 근대에 와서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간의 연구는 주로 신약 성경에 편중된 하나님 나라 논의였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구약과의 연관성은 대체로 무시되었다.

2) 둘째로는 연구에 있어서의 주관성 내지 자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었다.

① 자유주의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낙관주의와 진보에 대한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헤겔철학과 진화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② 역사비평적 접근에 있어서는 자료(또는 史料) 해석에 있어서의 자의성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묵시 문학에 대한 슈바이처의 철저한 신뢰는 다드의 태도 및 퓌멜의 정반대적 입장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연구에 있어서의 그 모든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가? 특별히 역사 비평적 접근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해야만 하겠다. 헛된 묵시문학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③ 실존주의적 접근은 성경을 실존주의 철학으로써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철학사조가 성경해석의 paradigm 내지 framework이 될 경우 성경은 이차적인 것이 되고, 그 철학에 따라 메시지가 변형 내지 왜곡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성경은 자기의 철학적 입장을 개진하는 하나의 표현 수단이 되어버

린다. 실존주의적 성경 해석자의 결론은 실존주의이지 그 이외의 어떤 것이 아니다.

④ 문학 비평적 접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이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쓰여졌으므로 거기에 주목하여야 함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의 문학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체'를 어떤 문학적 표현 장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문학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 즉, 단순한 상상과 허구만으로도 문학 작품은 형성될 수 있다. 성경을 문학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계시에 나타난 정보에 대한 일종의 자의적인 가감 행위에 해당한다.

⑤ 구원사적 접근은 그 동안에 있어 왔던 제 접근방법 중에서 가장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구원사적 접근방법도 구원사적 접근방법 나름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 따라 수많은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있어서도 각자들의 주장에 있어서의 자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

i) 쿨만은 구원사적 접근을 취하지만 창조를 신화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아담이라는 인물의 역사성을 부인한다. 또 하나님 나라의 already와 not yet 사이에서 하나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한 긴장도 현재적인 것이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sup>33)</sup>

ii) 리델보스의 경우 쿨만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구속사적 접근이 쿨만의 Christus und die Zeit에 '매우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비록 그가 쿨만의 already-not yet의 구도를 긴장이 아닌 상호의존관계로 본다든가 하는 몇가지의 측면에서 쿨만을 개선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쿨만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의 구속사적 해석은 너무 전체적이고 객관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 이는 그가 Lusien Lévy Bruhl이나 Émile Durkheim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사회학파의 집합적 인간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4)</sup> 결국 리델보스는 사회과학의 한 이론을 성경해석의 틀로 이용하고 있다. 도대체 성경이 기준인가, 사회과학 이론이 기준인가?

iii) 조지 래드의 경우는 쿨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단지 하나님의 통치 활동에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반측면 가운데 일

33) 변종길, "헤르만 리델보스의 「바울신학」에 나타난 주요문제점", 개혁신학과 교회, 제5호(고려신학대학원, 1996), pp.41-47.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직접 참조하라.

34) 변종길, 상계논문, pp.48-62.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연구에서 '하나님 나라'가 갖는 다른 측면이나 요소를 소홀히 해서도 곤란할 것이다.

##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접근의 정당성

1)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중적(多重的) 측면에서 보여 주고 있다. 변종길 교수에 의하면 이는 다음의 네가지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sup>35)</sup>

### ① 왕 (3위 1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 나라(βασιλεία)란 왕(βασιλεύς)이 다스리는 왕국(kingdom)이다. βασιλεύς가 없이는 βασιλεία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는 주로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 ② 주권(통치)

한 나라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데에는 주권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 즉 통치와 지배의 원리가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산상보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원리가 잘 나타나 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고 그 주권이 성립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 ③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만약 백성이 없으면 그 나라는 텅빈 나라가 될 것이요, 신화와 백성 없이 혼자서는 왕노릇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도 의미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곧 성도들이며 이는 출생함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거듭남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요1:12-13, 3:3, 5).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사역과 전도와 말씀 전파로 탄생된다.

### ④ 땅(공간적 요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소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영토가 없다면 왕과 백성들이 거할 처소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공중에 뜨게 되며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장소적 요소를 가지고

35) 변종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성경과 신학, 제14권(서울: 기독교서사, 1993), pp.9-14.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마7:21, 9:24등),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신다”(마26:29등),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2-43) 등의 표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2)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역사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역사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장소성 뿐만 아니라 시간성도 중요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연구함에 있어서 ‘계시’가 시간의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전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하나님 나라’ 자체 역시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① 하나님 나라 연구에 있어서 시간성을 고려한다 할 때, 물론 우리는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신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연구할 때엔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의 과거적 측면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과정에 있어서의 과거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구약이 무시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니 신약만 고려한다 해도 과거적 측면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백성이 되게 하신 근거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며, 예수님의 초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과거에 임하였고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미래적으로 완성될 나라이다.

② 하나님 나라를 연구함에 있어서 구약성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위의 논증에 의해서도 성립되나, 다른 근거도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라면, 구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눅24:44). 바울의 복음증거에 있어서 중심주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행28:23), “바울이 ...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행28: 30-31)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은 구약(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으로써 예수를 증거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근거하여 그 구약

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위의 두 성경 구절이 동의적 평행법의 형식으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권면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그럴 경우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피야 한다는 더 강력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③ 계시역사의 어느시점에 살고 있는 성도이든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i) 과거→현재적으로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즉,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ii) 현재→미래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기대와 소망 및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삼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이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연관성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우리는 지난번의 논의<sup>37)</sup>를 통하여 ‘언약’이 성경자체 내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며, 성경해석에 있어서의 거시적인 틀(macro-frame)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① 전형적인 언약의 공식(covenant formula)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성경의 표현은 이미 언약의 개념적 구성요소에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이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관계와 교제, 인간의 반응·제자도 등의 개념 역시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공통된 것들이다.

②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인 ‘주권(통치)’은 언약에 있어서의 한 요소인 ‘언약의 규정’에서 명시된다.

③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인 ‘땅’(영토)은 언약적 약속의 한 요소인 ‘땅’에 그대로 담겨 있다.

④ 하나님 나라를 연구함에 있어서의 시간적 측면은 제 언약의 점진성(아담언약→노아언약→모세언약→레위언약→아브라함 언약→다윗언약→새언약)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⑤ 하나님 나라는 또 인간의 나라가 아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36) 변종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개념”, p. 10.

37) 배현철, “성경언약의 기독교적 초점”, 고려신학보, 제 27집(고려신학대학원, 1996), pp.176-214.

흔히 함께 쓰시는 동사들은 그것이 “온다” 또는 “당도한다”(ἐρχεσθαι, 마6:10등)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다”(δοῦναι, 눅12:32등)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인간이 하는 행위는 주로 “들어간다”(εἰσερχεσθαι, 막10:23등)와 “받다”(δέχεσθαι, 막10:15)로 표현되어 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즐겨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확장한다”등의 동사를 일체 쓰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런 언어 사용에서 두드러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 즉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셨음을 말해준다.<sup>38)</sup>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 이런 은혜로운 성격은 ‘언약’의 구성요소인 ‘역사적 서언’에서 그대로 살펴볼 수 있다.

⑥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과 관련된 ‘지옥’의 상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과 관련된 행복과 평화(ἡσυχία)의 상태는 ‘언약’에서 ‘축복’ 및 ‘저주’의 요소로 담겨있다.

⑦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나라에의 그리스도 중심성은 성경언약의 기독교론적 초점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agent-bearer이신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이다.

4)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와 측면들이 ‘언약’안에 담겨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연구에 있어서 언약적 접근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성경 계시의 거시적인 틀(macro-frame)이다. 즉, 언약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접근법은 ‘성경으로써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에 정초하고 있다.

## II.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접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접근이 전적으로 타당함을 증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언약적 접근에 의해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기로 하자.

### 1. pactum salutis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pactum salutis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 왕이신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다.
- 2)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셨다(엡1:3-12).
- 3) 창조 이전의 선택의 목적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뿔림을 얻기 위해서”(벧전1:2)였다.

4) 1)-3)의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을 관찰할 수 있다.

① 왕이신 3위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②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탄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③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즉 우리의 ‘성화’가 계시되어 있다.

④ 우리가 어떤 일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는 선택하심을 입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롬9:18-21).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pactum salutis의 역사적 서언이요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주심이다.

⑤ 이러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엡1:9)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역사와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있어서의 기독교론적 중심성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있어서의 ‘때’를 따른 경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을 닮아감(“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11:45), 예수님을 닮아감(“우리가 다 ...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38) 김세윤, 예수와 바울(서울: 도서출판 참말, 1993), p.52.



한데까지 이르리니”, 엡4:13), 헌신, 교제, 제자도, 율법(율법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 등과 관계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거룩케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⑦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고, 성령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곧, 구원사역)로 말미암아 평안(하나님 나라의 측면)과 ‘의’(언약의 측면)를 얻게 되었다.

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의 백성됨,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또 그 통치로 인한 살림이 발생하게 될 장소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시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21:22). 또한 이 표현은 pactum salutis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적 중심성을 보여준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써 새 백성을 지으실 것이다.

5) pactum salutis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저편으로부터 creator-redeemer-king으로서 역사안으로 오실 하나님을 계시의 창을 통하여 뵈게 된다.

## 2. 아담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아담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다.

1) 왕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즉 하나님은 creator-king이시다. 하나님의 왕되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창조행위에서 비롯된다.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주권과 지배 아래 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창조주는 왕이시다. 이것이 ‘creator-king’의 의미이다.

2)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행위 자체에서 잘 나타난다. 즉,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창1:4, 1:10, 1:12, 1:18, 1:21, 1:25, 1:31에 모두 일곱번 등장) 이루어졌다.

3)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다.

4) 아담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은 ‘에덴’에 나타나 있다.

5)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기 이전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하다.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배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였기 때문이다. 에덴을 주신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아담언약의 역사적 서언은 아담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이요, 초월적 성격이다.

6) 아담언약에서의 하나님의 지배원리는 특별히 모든 피조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청지기적의 수행(대리통치권의 수행)과 결혼의 규례, 선악과에 대한 금령으로 나타나 있다.

7) 아담언약에 있어서의 살림의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주어지는, 생명나무에 인쳐진 생명의 약속과 생육·번성의 축복,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왕노릇함, 에덴의 모든 실과를 누림, 결혼을 통한 가정의 행복 등이 있다. 아울러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할 때 주어지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

8) 아담언약에서의 기독교적 초점은 다음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연관된다.

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그 “말씀”의 사역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그리스도께서 아담 언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한 장본인이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creator-king이셨다.

②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살림이셨다. 아담 언약 안에서의 생명나무는 성례전적으로 그리스도안에 있는 생명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나무는 선악과수와 잘 대조된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생명이 없다. 다만 사망이 있을 뿐이다.

9)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였다. 선악과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에 대한 반역 행위였다. 창조질서가 깨뜨려지자 아담을 비롯한 모든 피조계에 사망이 닥쳐왔다. 아담이 죽을 운명에 있었을 뿐 아니라 전 우주가, 하늘과 땅과 별들도 사망아래에 갇히게 되었다("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벰후 3:10).

10) 아담언약의 중보자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크게 훼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중보자인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의 핵심적인 본부인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실 것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장에 나가셔서 싸우시고 승리를 확보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함과 생명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될 것이다("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21:1).

11) 범죄 이전의 아담은 과거→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의 모든 은택에 감사하면서 창지기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했었고, 현재→미래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생명을 바라보아야 했다.

12) 범죄 이후의 아담은 과거→현재적으로 이미 주어진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은혜로운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가인→아벨→셋'을 바라보아야 했었고, 현재→미래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였다.

13) 아담 언약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두 인물에 관한 기사가 히11:4-6에 등장한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마23:35). 에녹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로 옮기웠다(히11:5-6, 창5:21-24).

14) 아담언약 안에서 우리는 종말적으로 오시게 될 redeemer-king이신 예수님을 뵈게된다.

### 3. 노아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아담 이후,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죄가 온 땅에 가득차게 되자(창6:5),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수행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모든 '생물'에 한정되었다(창6:7).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창7:11) 큰 홍수가 난 뒤에는 인간의 수명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모든 산 동물이 채소같이 인간의 식물이 된다(창9:3). 노아언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과 같다.

1)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큰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노아는 이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즉, 구원)를 맛보았다.

2)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고기는 피 채먹지 말라는 금령의 형태로 주어졌다.

3) 노아 언약의 통치가 미치는 공간적인 장소는 '모든 땅'이다. 이것은 노아 언약의 우주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고(창9:11),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둬주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8:22)고 노아 및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을 상대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창9:8-10). 여기서 낮과 밤은 지구의 자전을, 계절의 변동은 지구의 공전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 즉, 우주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실 것을 의미상 내포하고 있다.

4) 노아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살림의 측면은 무지개로써 증거되는 심판의 연기와 생육·번성을 들 수 있고, 짐승이나 사람의 피에 대하여 그 생명을 찾으리라(창9:5)는 저주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에게 나타날 것이 언급되고 있

다.

5) 노아 언약에서의 그리스도 중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구원을 얻은 8명의 하나님의 백성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구원하는 표, 즉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이 뱀전 3:20-21의 계시내용이다.

② 노아언약에 나타난 우주적 심판의 연기, 즉 우주적 질서의 유지는 그리스도의 지탕사역에 근거한 것이다("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1:17).

③ 위의 사실은 노아제사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고 있다.

6) 노아 언약에서의 계시의 진전요소는 아담언약의 저주에 근거한 우주적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까지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심음과 거름"(창8:22), 즉 노동을 통하여, 땀을 흘려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3:17)는 아담언약의 저주가 계속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와 공중의 생물이 인류를 두려워하며 무서워 하리라(창9:2)는 말씀과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 쟈라(창9:3)는 말씀은 인류에 대한 피조계의 반역이 아담이후로 크게 증폭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7) 홍수 이전의 노아는 과거 → 현재적으로 조상적 부터 배풀어 주신 은혜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 미래적으로 인류에게 닥쳐올 큰 홍수심판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8) 홍수 이후의 노아와 그 후손은 과거 → 현재적으로 큰 홍수의 심판에서 멸하지 않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주적 심판의 연기에 대해 감사하면서, 현재 → 미래적으로 닥쳐올 우주적 심판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9)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여 인본주의적인 왕국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단일 언어였던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인류의 결속력과 연대성을 제한하심으로써, 죄의 세력을 억제하시는 통치행위를 보이셨다.

10) 창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이 지상의 열국을 이루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또 창11장은 셈→테라→아브람의 혈통을 보여주고 있다.

11) 노아언약 안에서 우리는 노아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redeemer-king되심을 볼 수 있다.

12) 이제 아담언약 아래 있었던 육지와 공중의 기식있는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 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절되었다. 살아남은 것들은 방주안에서 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들 밖에 없다. 노아를 필두로 하는 새로운 동물계가 지구상에 거하게 된 셈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러한 노아적 피조질서계는 앞으로 다가올 아브라함적 피조질서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 노아적질서계는 좀더 육적인 특성을 갖는데 비해 아브라함적 질서계는 좀더 영적이다.

#### 4. 아브라함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계를 형성하셨다. 그러나 노아와 그 후손들 역시 그 죄성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성향에 있어서는 홍수 이전 사람들 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구속사역을 펼쳐가신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노아의 계열로부터 한 사람, 곧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펼치신다.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언약의 종주(suzerain)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다(창15:7).

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창12:2), 땅(12:7등), 큰 민족의 형성(창12:2),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됨(창12:2),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창12:3)을 약속으로 주셨다. 이 약속을 주신지 24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아브람→아브라함)을 주시면서 (창17:5),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명령하시고(창17:1), 할례의 시행을 명하셨다(창17:12-14).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원리는 먼저 은혜를 베풀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직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신데 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설치하신 율타리였다.

3)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신속히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후에 출애굽 시기에 와서였다(“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1:7).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지 400년후(행7:6)에 와서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계시의 진전에 따라 살펴 볼 때 이들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다(“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롬9:7).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3:29).

4)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구체적인 공간은 가나안 일경이다(창17:8). 그러나 가나안 땅 역시 언약을 주신 이후 바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그러나 여기서 밭불일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행7:5). 땅에 관한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의 범위는 애굽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까지였다(창15:18). 땅의 범위에 관한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다시 언급되었다(“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테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니라”, 신11:24). 여호수아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언급하셨다(“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테에 이르는 헛 족속의 온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수1:4). 여호수아서는 땅의 정복(1-12장)과 분배(13-24장)에 관한 계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다지도 땅에 관한 약속을 더디 이루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있었다. 히브리서는 말한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히11:9-10). 이성은 땅에 있는 어떤 성, 예루살렘성이었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지 아니하신 것은 그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도록 하심으로써 본향을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히11:13-14). 그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창15:7) 마음에 두었는가? 아니다. 그는 이삭, 야곱과 더불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히11:14-15).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11:16).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성이었다(갈4:21-26).

5)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씨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때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다(창12:2,4).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것은 25년후에 와서야 이다(창21:5).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더디 주신 데에도 큰 뜻이 계셨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후손이 바로 예수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다(“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셨느니라”, 요8:56). 아브라함은 25년간 이삭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신 후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삭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적인 약속의 성취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이 보다 구체화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함이 나타난 뒤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22:16-18).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 번제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3:16).

6) 아브라함 언약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들이다. 그 모든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물론 하나님 자신이다(창15:1).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곧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다(창15:7).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조치들과 역사적 서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애당초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었다.

7) 아브라함 언약의 모든 약속들은 살롬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었다. 또한 할례를 행치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기반한 그 통치 행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같이 행하는 자는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하시고자 하셨다. 언약에의 배신이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함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창17:14). 우리는 이 할례를 율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기가 쉽다. 아브라함 언약을 달리 ‘할례의 언약’이라 한다(행7:8). 아브라함 언약이 율법적인 언약인가?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였다(행15:1, 15:5, 21:21 등).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아브라함)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롬4:11). 바로 이런 의미에서(골2:11-12참조) 할례는 세례와 동일하다. 할례는 구약의 세례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구약의 세례인 할례는 폐지되고(갈5:2) 세례로 대체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할례가 없는자는 곧 믿음이 없는 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역시 믿음으로만 들어 갈 수 있는 나라였다.

8) 이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창조될 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할례인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난 기독교적 중심성이다.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agent-bearer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9)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삶은 과거 → 현재적으로 자손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통하여 은혜로운 약속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고, 현재 → 미래적으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창조될 큰 무리의 후손을 바라보며, 천성(天城)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였다. 바로 이것이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이다.

10) 아브라함 언약은 아담 언약에 있어서 실패한 증보자 아담과 비교될 수 없는 진정한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진전을 보인다. 그러나 아담 언약 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이 이미 약속되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보인다. 이 두 언약의 차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의 역사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점진성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노아 언약에 비교해 볼 때 새 백성의 창조라는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그 새 백성의 모습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엡4:22-24) 만큼이나 크다.

## 5. 모세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요셉의 시대엔 이스라엘 자손 70인이 애굽에 있었다(출1:5). 그러나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고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신민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출1:8-9).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학정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람에게 그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창15:13). 아브라함 언약 아래에 살았던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구원자가 오기를 학수고대 하였을 것이다(창22:17). 400년의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 주셔서 그들을 애굽의 학정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모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다.

1) 모세 언약의 종주(suzerain)는 왕이신 하나님이셨다. 이 하나님은 아담-노아-아브라함-모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그분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주로 다가 오셨다.

2) 모세 언약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들은 새 모세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친백성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2:2).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이 과거→현재적 의미에서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다. 물론 현재→미래적 의미에서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야 이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이들 양자 사이에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구약백성도 역시 교회였다(행 7:38).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언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역사에 있어서의 차이가 무시될 수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역사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3) 출애굽을 통하여 이미 애굽으로 부터 구원을 얻은 그들에게 이제 율법이 주어진다(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그들이 더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통치로 부터 떠나는 것이 반역이요 죄의 본질이다. 율법은 그들이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죄임을 가르쳐준다(롬 3:20, 7:7). 그리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만든다. 속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요 1:29).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갈 3:24). 율법은 법있게 쓰면 선한 것이다(딤후 1:8).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마 22:36-40).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거룩하고(롬 7:12), 신령하며(롬 7:14), 선하다(롬 7:1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롬 10:4).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갈 5:18). 그리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제자도). 이것이 우리의 '성화'이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다. 모세 시대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언약과의 연속성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은 율법을 아브라함 언약과의 연관성 아래에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보다 430년 후에 주어진 것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갈 3:17). 오히려 아브라함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머무는 율타리로 주신 것이다. 율법에 대한 이해의 열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4) 하신 바로 그 말씀이다. 율법은 구원 받은 자의 삶과 성화, 그리고 제자도(하나님을 닮음)와 관계된 것이다. 신약의 야

고보서도 바로 이런 맥락을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한다(미 5:18).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새 계명을 받았다(요 13:34).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전 9:21). 출애굽기는 출애굽(1-18장)→언약(계명, 19-24장)→성막(25-40장)의 구조로 되어있고, 레위기는 다섯제사(1-10장)→성결의식(11-27장)의 순서로 계시되어 있다. 민수기는 거룩함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잘 보여준다. 그리하여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이 주어진다(신명기). 이것이 구약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배(통치) 원리였다.

4) 땅에 대한 약속도 모세언약 아래에서 주어진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주어진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완성에 유의해야 한다: 백성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 뒤에야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순서는 출애굽의 계시가 주어진 순서와 동일하다(출애굽을 통한 백성형성→계명→성막). 바로 이 땅이 하나님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구체적인 공간(영토)이다.

5) 모세 언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성격은 아브라함 언약과의 연계성 속에서 잘 이해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형성의 약속, 땅 약속을 주신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었다. 이제 때가 차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율법을 행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모세언약의 역사적 서언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6) 하나님 나라의 살롬의 특성은 모세 언약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응할 때 사사건건 나타난다(신 28:1-14).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의 비(非)살롬적 특징 역시 순간순간 뒤따를 것이다(신 28:15-68).

7) 모세 언약 아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현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들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율타리인 율법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했다. 또 현재→미래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모두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주실 그 구원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였다.



8) 모세 언약(율법)은 구원받은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 관련된,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관한 언약이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마11:13),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능(눅 24:44)을 수행하는 것이었다("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눅16:16). 출애굽한 모세 언약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계시의 말씀(창~신)을 통하여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구속주이신 왕(creator-redeemer-king)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담-노아-아브라함-모세언약 이라는 4중적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9) 모세 언약 안에서의 그리스도 중심성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인 성막 안에서의 속죄제물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1:29).

10) 출애굽한 모세 언약의 백성들의 경험을 성례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아래에 있었으며,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세례이다: "우리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고전10:1-2).

② 그들이 먹었던 성찬예식의 떡은 만나였다(요6:48-51 및 고전10:3).

③ 그들이 마셨던 성찬의 음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나오는 그 물이었다(고전10:4).

④ 앞의 아브라함 언약의 7)항에서 논의 한 바대로 그들의 할례는 구약의 세례였다.

⑤ 또 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의식을 행하고 고기를 먹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성찬 예식의 거행이었다(참고→요6:53).

## 6. 다윗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아스다롯을 비롯한 각종 이방신을 숭배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지 못한 이방인들로 인하여 늘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신속히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유들 중의 하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창15:16).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다(신20:17).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다 진멸치 아니하였다(삿1:27-36).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쉽사리 동화되어 버렸다. 각 지파들의 결집력도 없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서의 왕정의 필요성을 잘 부각시켜 주고 있다(삿17:6, 21:25). 루기는 오실 왕(다윗)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사사오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다(삼상하).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왕정이 전개되었다(왕상하, 대상하). 그럼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기로 하자.

1)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땅의 지경(창15:18) 내의 모든 이방인들을 정복케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약속의 온전한 성취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다윗 개인으로 볼 때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것이었다(삼하7:9). 다윗은 단지 목동에 불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역사적 서언이다.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지파간의 결속력도 생겼다. 다윗 개인으로 보나 이스라엘 전체로 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을 볼 수 있다.

2)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통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신 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들을 약속하셨다. 그 중에 왕에 대한 약속은 창17:6 등에 있다. 이 왕에 대한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구약계시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아브라함 언약이 그 성취의 절정에 도달한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경륜은 다음과 같다: 그 백성의 형

성→통치원리(율법)의 부여→영토(땅)를 주심→왕을 주심.

3) 다윗 언약에서의 통치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언약의 연속성(통일성)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가 2)에서 살펴본 대로 모세언약의 율법이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모든 왕들이 여호와와의 율법에 의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윗 언약에서의 왕의 기능은 율법의 시행에 있었다. 왕이 율법에 의거한 통치를 하느냐의 여부가 그 왕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4) 다윗 언약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공간성(장소성)은 가나안 땅에서 구체화 되었다. 1)에서 언급된 대로 가나안 땅이 완전한 다윗의 통치령이 되었다.

5)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12지파였다.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각각의 지파에 독립성이 강하게 부각되었으나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아 전지파에 걸친 통일성이 더 강력히 부각되었다.

6) 하나님 나라의 살롬의 측면이 다윗 언약안에서는 율법의 시행 여부에 달려 있음은 이미 3)에서 언급되었다. 다윗 언약안에서 왕조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이 율법이 가진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율법시행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는 바로 성전이다(솔로몬 시기에 와서 성막→성전으로의 진전이 있었다). 우리는 다윗 언약의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성전으로의 진전을 염두에 두시고 왕권 언약(다윗 언약)을 주신 것을 분명히 살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레위인들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레위 지파의 기능을 예전에 비하여 확장장비하였는데 그것은 크게 여호와와의 전 사무, 유사, 재판관, 문지기, 찬송하는 자의 다섯가지였다(대상23:1-5).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정적 직분의 확립과 더불어 사독계열의 제사장 직분이 확고화 되었고(왕상2:27, 2:35), 선지자의 직분도 그 기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선지자는 다윗왕국에 있어서의 신정적인 감독자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내심과 메시지를 받아서 율법에 근거한 예언을 하였다. 제사장은 제사직의 수행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와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다(레10:11). 이러한 신정적 직분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다윗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그 통치원리인 율법의 기능이 공

식적으로 발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율법은 제직분(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때 올바르게 시행된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직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7) 다윗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적 중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다윗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왕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왕권 언약을 주신 동기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이미 왕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에 까지 소급되는 데서 알 수 있다(창17:6). 비록 다윗이 여호와와의 장막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려는 마음이 생기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② 그런데 다윗 언약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누군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차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핵심이 다윗보다는 다윗의 자손에게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삼하7:12-15, 대상17:11-14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 자손이 단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누구일까? 그는 여호와와의 집을 건축한다고 하였으므로(삼하7:13, 대상17:12) 일차적으로 솔로몬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통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자손'을 인하여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삼하7:16, 대상17:14)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솔로몬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1:1).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전된 자기 몸을 사흘만에 세우셨다(요2:19, 21). 결국 다윗 왕권의 영원성과 견고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

③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사방의 민족과의 평화를 주시고 일부 왕들도 그의 관할하에 있게 하셨으나(왕상4:24)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바울의 이방선교 이후의 교회사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즉, 그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8) 다윗 언약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과거→현재적으로 아담-노아-아브

라함-모세-레위-다윗의 6중적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원리인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현재→미래적으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였다.

## 7. 레위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레위 지파의 중요성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부각된다.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 유월절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짐승의 처음 난 것들까지 포함하여,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인하여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여호와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의 처음 난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민3:12-13). 그럼 그들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성막과 성전)에서의 봉사가 요구되었다. 레위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다.

1) 레위 언약의 중주(suzerain)는 왕이신 하나님이다.

2) 그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첫 소생을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 까지 모두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레위 언약에 있어서의 역사적 서언이다. 이것은 레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을 증거한다.

3) 레위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레위 지파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나라'(히브리어 본문은 '제사장들'로 복수이다)로 삼으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출19:6). 즉,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노릇을 하면서 제사직분을 수행하고, 기타의 성전에서의 봉사(제사직분의 수행을 돕는 일들)에 수종들면서 율법의 교육을 책임져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만국에 대하여 장자노릇, 즉 율법을 가르치는 등 제사장의 직분에 준하는 일들(예배를 도우는 일)을 감당해야 했었던 것이다.

4) 레위 지파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원리는 기본적으로는 율법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성막 및 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대속제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율법을 교육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게되는 지식과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존재의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5) 레위 언약 및 레위 지파의 기능이 지향하는 이러한 목표들은 하나님과의 살림의 확보와 관계된 것이다. 이것은 레위 언약안에서 '안식'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안식일(출20:8등) → 안식년(레25:5등) → 희년(레25:10등)의 cycle(이것이 성막·성전예배의 주요 주기임)이 바로 그것이다.

6) 레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살림의 특징가운데는, 2)에서 언급된 역사적 서언의 요소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분 자신을 선물로 주심에 있다. 사실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분배된 땅의 구획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분깃이기 때문이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민18:20).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속받게 하셨다. 비(非) 살림적 요소는 율법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7) 레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은 특별히 성전(성막)에서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왕을 성전(성막)에서 친히 만나 볼 수 있었다.

8)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십일조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십일조)→레위지파(십일조)→하나님의 구도로 되어 있는데 이는 레위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신정적 통치구조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9) 레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적 중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그리스도는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어린양이다(요1:29).

②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하였다(히8:5).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제사장직분 역시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다. 실물·실체가 나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직분의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민 25:12-13). 따라서 우리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히9:11). 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전이기도 하시다(계21:22).

10)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왕이신 하나님의 좌소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성전이 모형에 불과하다 보니 성전을 중심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율법의 규례가 모형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다하여 성전이나 제사장 직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의 직분수행은 멜기세덱과 예수님 사이의 징검다리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히6:19-7:28).

11) 제사장으로서의 기능 수행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장자노릇함, 장자됨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고전15:22-24) 새 언약백성의 참 장자이시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

12) 레위 언약과 모세 언약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실 레위 언약은 모세 언약의 한 부분에 속한다. 제사장 아론은 모세의 조력자였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모두 아론의 조력자들이었다. 그리고 모세, 아론, 레위 지파 모두는 레위의 후손들이었다(출2:1, 4:14등). 성전(성막)과 그곳에서의 예배는 모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모세 언약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핵심적인 통치원리였다. 그러나 성전도, 모세 언약도 구약의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적 기능만을 지닐 뿐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언약에 실패하였지만, 그들이 언약에 완전한 충성을 보이고 각각의 언약들이 파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실물이 오면 그동안 가졌던 의미들을 실물에게 넘겨 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한편에서 언약의 연속성과 통일성에 유념해야 한다. 즉, 그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레위 언약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현재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속죄적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면서, 현재→미래적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줄 어린양, 영

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였다.

## 8.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율법(언약)에 기초한 심판(언약적 저주)을 선고하였다.

끊임없는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을 당하였다. 한편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선지서들은 신구약 중간사 역시 하나님의 통치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신구약 중간기는 선지서에서 계시되었던 새 언약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3위일체 하나님의 준비의 경륜에 속한다.

새 언약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1:1).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씨' 이시다(창22:17-18).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의 세력이 거꾸러짐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창22:17)는 약속이 성취된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창22:18).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그 후손' 이시다(삼하7:12-16, 대상17:11-14).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시다. 구약의 모든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적이다("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마11:13). 우리는 구약의 모든 언약들 속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언약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였다. 한편, 새 언약은 이렇게 끝맺고 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대! 아멘"(계22:20-21). 교회사의 한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고대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다.

1)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옛 언약들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이다. 새 언약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왕이니라”(요18:37). 이 왕은 구약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시키시는 언약적 왕이시다.

2)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지배(통치)원리는 무엇보다 산상보훈이다. 이러한 산상보훈의 통치원리는 모든 서신들에 스며들어 있다(특히 그 후반부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니고 있다(고전 9:21).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 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21:8).

3)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다(막1:15).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탄생한 것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이후의 일이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자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었다. 모든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교회에 주어진 것들이었다. 이와같이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이므로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redeemer-king이시다. 성경의 많은 비유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동질성과 아울러 이질성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측면을 기술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역시 종말론적인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그것이 교회의 현재 상태이다.

4)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은 새 예루살렘이다(계3:12, 21:2). 예수께서 승천하심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4). 예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처소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 성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계3:12, 21:2)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에 있어서의 종말론적 측면이다. 현재적(과거→현재적)

측면도 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은 하나님나라가 이미 임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마12:28). 눅17:20-37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눅17:20-21)과 미래적 측면(눅17:22-37)을 동시에 말씀하셨다. 그럼 현재적으로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또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장소성은 레위 언약적 측면에서 접근가능하다: 바로 예수께서 성전이다(요2:21).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에 있는 자이다(롬12:5, 고후5:17, 갈1:22등).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고, 왕이시며, 지배원리이시고(요14:6), 언약백성의 대표(딤후2:5)이시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다! 즉, 예수님이 auto-basileia (αὐτοβασιλεία) 이시다. 또 하나님의 백성도 장소적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요2:2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1:23, 고전3:16, 12:27, 엡4:12). 그렇다면 교회는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나라이다(벧전2:9).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의 지칭 내용은 커다란 의미의 폭을 지닌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각각의 문맥에서의 구체적인 지칭 내용에 유의하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분의 백성이다. 이것이 새 언약에서의 역사적 서언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을 증거해 준다.

6) 새 언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살림의 측면은 귀신축출(마12:28등), 병고침(마12:9-13),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롬8:2), 영생(요6:47), 기도응답(마21:22),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소들에서 드러난다. 그 살림의 실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주어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갈2:16)에 있다. 새 언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벗어날 때 벗어지는 비(非)살림적 측면은 무엇보다도 사망(롬5:12)과 지옥(마23:33)으로써 표현된다. 모든 비살림적 요소들은 사망과 지옥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들이다.

7) 새 언약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과거→현재적 측면과 현재→미래적 측면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

였다(롬5:8). 새 언약의 옛 언약과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 과거의 폭은 영원전까지 확대될 수 있다(엡1:3-9). 현재→미래적 측면은 아직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고 새 하늘과 새 땅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는 죄가 만연하며 교회안에도 온갖 불의가 있음을 볼 때,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는 우리 역시나 온전한 것을 대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적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과 전도-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약적 의미에서의 제사장직(벧전2:9)의 수행이다.

8) 새 언약의 기독교적 중심성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미 언급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요18:37),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그의 몸이며(엡1:23),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며(계21:22),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의 통치원리이다(요14:6). 즉, 그리스도안에 천국의 요소들(또는 측면들)인 왕, 백성, 장소(영토)성, 통치(지배)원리 모두가 들어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요1:1, 빌2:6, 마1:23).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있게 그리스도께서 auto-basileia임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모든 증거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살펴보았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눅24:44). 이를 종합하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의 중심 주제이다.

9) 모든 언약들은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새 언약 자체도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구약→신약의 계시역사, 언약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점진적 증거였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시의 실체이다(히1:1-2).

10) 새 언약의 시간적 범위는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이다. 그러나 새 언약의 옛 언약 및 pactum salutis와의 연결성을 고려하면 그것은 영원전까지 소급되며, 새언약의 내용적 유효성을 고려하면 미래의 영원까지 계속된다.

## N.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언약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1장에서는 그동안 전개되어온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역사적 논의의 흐름을 살폈다. 하나님 나라 연구사에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은 특히 근대적 연구였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적 접근, 역사비평적 접근, 실존주의적 접근, 문학비평적 접근 및 구원사적 접근으로 구별 될 수 있었다.

이런 접근법들 가운데 구원사적 접근을 제외하고는 지나친 자의성과 사변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대원칙을 고의적으로 거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원사적 접근 역시 다의성(多義性)을 지니고 있었고 거기에서도 주관성의 개입, 철학과 과학에 대한 맹신주의적 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접근의 정당성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의 공간을 다섯가지의 차원으로 분석하였다(왕, 주권, 백성, 영토, 시간적 점진성). 그리고 이들 다섯가지의 차원이 언약의 개념안에 내포된 것임을 논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대응성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접근이 "성경으로써 성경을 해석하라"는 해석원칙에 부합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난 번의 논문인 "성경언약의 기독교적 초점"에서는 언약의 개념이 성경에 계시된 개념임을 언급하였다. 이와같은 방법론의 토대위에서 우리는 각 언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작업의 과정에서 구·신약계시의 초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이다.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그 시대의 성례전적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누렸으며, 신약의 백성들도 다시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과 은혜의 방편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 은혜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행28:23). "바울이 ...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행28:30-31).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이 두 성경구절에 대한 거시적 주석(macro-level exegesis)을 시도해 보았다. 우리는 바로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약어 해설

CK: Herman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오 광민譯, 하나님 나라,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CKG: Peter Kuzmic,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명 증남譯,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서울: 새순출판사, 1990.

CQKG: George Eldon Ladd, Crucial Questions about the Kingdom of God, 신성종譯,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서울: 성광문화사, 1989.

NTT: G. Hasel,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권성수譯, 신약신학: 현대논쟁의 기본 이슈들,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PF: George Eldon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이 태훈譯,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3.

참고 문헌

1. George Eldon Ladd, Crucial Questions about the Kingdom of God, 신성종譯,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서울: 성광문화사, 1989.
2. George Eldon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이 태훈譯,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3.
3. Herman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오 광민譯, 하나님 나라,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4. 변 중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성경과 신학(제14권), 서울: 기독교지혜사, 1993.
5. 변 중길, "헤르만 리덜보스의 「바울신학」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 개혁신학과 교회(제5호), 고려신학대학원, 1995.
6. G. Hasel,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권성수譯, 신약신학,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7. 김 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참말, 1993.
8. Peter Kuzmic,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 명증남譯,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서울: 새순출판사, 1990.
9. 신성종의 5인, 하나님 나라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10. 배 현철, "성경 언약의 기독교적 초점", 고려신학보(제27집), 고려신학대학원, 1996.

# 高麗神學報

제29집

등록번호/ 제카 3-226

1998. 2. 14 인쇄

1998. 2. 17 발행

발행인 / 유 영 업

편집장 / 전 남 수

편집위원 / 김승현, 조지영, 임경희, 오상호, 현성아

발행처 / 고려신학대학원 53대 학우회

6002-030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고려신학대학원학우회 편집실  
Tel. (051)241-4127. Fax. 241-4127